

정운찬 “대선 출마 아직 고민 중”

햇볕정책은 한국 경제 활로 찾는 핵심 문제

어제 전남대서 특강

유력한 법여권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4일 “광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모태이고, 개혁의 산실이며 또한 평화와 통일의 요람이다”고 ‘광주’를 한껏 칭찬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가진 ‘한국의 미래’라는 강연을 통해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었고, 광주의 열정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정권교체와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장은 또 “햇볕으로 상장되는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 민족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핵심적인 문제”라며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한미 FTA협상 타결과 관련, “경제개방의 확대인 FTA는 불가피하다”고 말한 뒤 “그동안 쌀은 지켜야 함은 물론 개성공단 제품을 국산품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 협상에서 지켜내지 못했다”며 “협상 결과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고 평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4일 오후 전남대 본관 용봉홀에서 ‘한국의 미래’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300여석 규모의 강당에는 이날 전남대생 500명이 참석, 정 전 총장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 정 전 총장은 “한국 내에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은 넓지 않은 데도 진보와 보수 간 필요없는 갈등과 대립이 많았다”며 “이를 극복하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는 저를 ‘좌’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저를 ‘우’로 평가는 것을 보고 ‘중도’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또 대권 도전 선언 시

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질이 있는지, 당선 가능성성이 있는지, 당선되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 학기 강의는 학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밝혀 6월 이후에나 결단을 내릴 것을 시사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 대선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대답을 회피했다.

정 전 총장은 또 “대학은 공부만 학부만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역사의 광장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론도 거론, 어운을 남겼다.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이번 광주 방문은 강정재 전 남대 총장의 초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운찬, 범여권 일으키는데 역할 할 것”

광주 찾은 정동영 전 의장 밝혀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4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무너진 범여권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베네스다 요양원을 찾은 정 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정 전 총장은)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을 받아온 분”이라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투신하겠다는 고민을 빨리 끝내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길 바란다”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이어 정 전 총장에게도 러브콜을 보냈다. 정 전 의장은 이어 “정 전 총장의 원칙을 존중하며

나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범여권 통합작업과 관련, “열린우리당 주도의 통합은 사실상 힘들게 됐으며 범여권 통합이 지금처럼 지리멸렬해선 안 된다”며 “6월이 지나면 하한기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는 등 범여권 통합의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6월말까지 통합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협상 타결과 관련, 정 전 의장은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제는 국론통합이 중요하다”며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모두 모아 다가오는 개방의 파고를 적극적으로 해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여의도 민생정치’의 지속 여부

에 대해 그는 “농민과 도시 노동자 등 신 소외계층의 아픔과 어려움을 둘러보니 느꼈으며 이를 정책으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다음주에는 동해안에서 임진각까지 휴전선 155마일을 걷는 ‘평화장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끌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베네스다 요양원을 찾아 노인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를 하고 “건강하시라”며 위로했다. 또 노인들에게 큰절을 올리는가 하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즉석에서 허리를 치기도 했다. 이어 정 전 의장은 광주 동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을 드는 등 봉사활동을 한 뒤 전주로 이동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선후의원, 보좌진 월급 유용

매달 50만~100만원씩 각출 지구당 운영비로 써

일부 국회의원 편법 사용 많아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열린우리당은 탈당,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선후의원(영암·장흥)이 수년 동안 보좌진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처럼 일부 국회의원들이 편법을 통해 보좌진의 월급의 일부를 유용해 정치자금 등으로 쓰는 행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이다.

4일 유선후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대 총선 이후 유 의원 보좌진들은 매달 월급에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은 각출,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이 지구당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의원실에 반납한 월급의 규모는 많게는 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유선후의원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 유 의원실 일부 보좌관들은 월급의 일부 반납은 자발적인 측면이 강했으며 이미지도 지난 2월부터 중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유 의원의 반대에도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무려 3년 동안 반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이 강제적으로 매달 월급에서 얼마를 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루이아 보좌진 월급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 의원실 모 보좌관은 “유 의원과 정치생활을 함께하다가 보좌진으로 임용됐다”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심정에서 자발적으로 매달 월급의 일부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입장문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편, 언제든지 보좌관 교체를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반납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측근을 보좌진으로 등록해놓고 매달 지급되는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유령 보좌진’임명 방법도 흔히 쓰이는 수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원 모 보좌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 정치자금을 쓰는 것은 과법치 행위”라며 “국회 안에 신고 센터라도 운영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원로 대표들이 4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민주의 종각 앞에서 김홍업씨 보궐선거 출마에 반대하는 ‘지역자연기 1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역할 둘째 아들이 보선에 출마하는데도 이를 자제시키기는 커녕 명예회복을 위해 열심히 심판받으라고 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이는 아들의 명예는 중요하고 지역민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 도덕불감증의 과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DJ는 지역민을 불모로 한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은 여생을 오직 조국통일과 지역민을 위한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원로들은 “우리의 뜻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희생을 통해 DJ를 지지해온 지역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DJ의 노력으로부터 지역민의 명예와 지역의 자존을 지켜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공동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김씨의 출마에 강력히 반대해온 광주·전남 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전 11시 무안승달예술회관에서 ‘김홍업출마반대대책위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무안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DJ와 김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 출마의 부당성 홍보 등을 통한 유권자의 바른 선택유도 ▲동교동 방문 ▲낙선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홍업 보선출마 반대”

지역 원로 ‘100인 선언’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출범식

김호준 전 광주YMCA 사무총장과 서명원 한국투명성기구 상임공문, 오인균 전 광주향교 전교, 정규철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지역원로들은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민주의 종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자연기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DJ는 자신의 지역구를 큰 아들에게 물려준 데

이어 증여세 포함과 이권청탁으로 복

시제 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제작: 광주제사상
제작자: 김민수
제작일: 2007년 4월 5일

전화: 010-383-8283

ALU-TESOL

www.aluniversity.com

경찰시험 협력비법 공개

동아경찰영어

동아외국어학원

ALU-TESOL

www.aluniversity.com

경찰시험 협력비법 공개

동아경찰영어

동아외국어학원

경찰시험 협력비법 공개

동아경찰영어

동아외국어학원